

‘아리수’의 수확일 8월 30일 기준 과일 특성은 표 19와 같다. 군위 A농가의 과일 경도는 3.4kg/Ø11mm로 매우 낮아 분질화 된 정도임을 알 수 있다. 착색은 김천 김천지역에서 수확한 ‘아리수’가 적색도가 높고 황색도가 낮았다. 적색도는 24.8로 유의하게 높았고, 황색도는 14.3으로 가장 낮았다. 군위 A농가의 황색도가 25.9로 매우 높음을 볼 때, 황색도가 높은 과일의 경도가 낮음을 유추할 수 있다.

표 20. 아리수 품종의 지역별 과일의 고온 피해율(’16)

(수확일:8.30)

재배지역	수관하부관리 형태	낙과율 (%)	과피황변과율 (%)	수상갈변과율 (%)	일소과율 (%)	에틸렌발생량 ($\mu\text{L}\cdot\text{L}^{-1}$)	
						수확 당일	수확 7일후
군위 A	청경	54.5	45.6	27.3	-	1.07 a	-
군위 B	청경	21.4	50.0	0	0	0.72 b	1.87
군위 C	초생	9.1	0	0	0	0.72 b	1.00
영천	초생	7.7	0	0	0	0.71 b	1.73
안동	청경	13.9	69.4	4.2	0	0.62 b	1.10
김천	초생	0	0	0	0	0.59 b	1.48

‘아리수’의 수확일 8월 30일 기준 과일의 고온 피해율은 표 20과 같다. 군위 A농가의 낙과율은 54.5%로 매우 높고 과피 황변과율도 45.6%, 수상 갈변과율 27.3%로 높아 정상과일일 전혀 수확할 수 없었다. 또한 군위 B농가의 아리수 품종은 낙과율 21.4%, 과피황변과율 50.0%로 높았다. 또한 안동 농가의 아리수 품종의 낙과율은 13.9%, 과피황변과율 69.4%로 고온 피해 증상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. 그러나 군위 C농가, 영천 및 김천 농가는 낙과율이 10%미만이었고, 과피 황변, 수상갈변, 일소과 등의 고온 피해가 없었다. 고온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수관하부 관리 형태가 전부 청경재배이며, 미발생 농가의 수관하부 관리 형태는 초생재배였다.

표 21. 아리수 품종 재배 농가의 수관하부 관리 방법에 따른 온도 유지 시간

(시간;분)